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조중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38호 [루계 제23355호] 주제100 (2011)년 2월 7일 (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사설

위대한 백두령장의 강행군정신으로 대비약의 폭풍을 일으키자

백두의 기상이 넘치는 2월의 강
산에 절세의 위인을 따르는 강행군
대오의 발구름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
들, 인민들은 애국헌신의 헌지지도
강행군으로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승
리에로 이끄는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열광같은 흥모
의 정에 넘쳐 있으며 위대한 백두령
장의 영광을 따라온 승리의길을 따
라 대고조진군속도를 최대로 높여
나갈 불같은 결의를 다지고 있다.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오늘의 기세를 조금
도 늦추지 말고 신심드높이 강성
대국의 형마루를 향하여 강행군
길을 계속 다그쳐야 합니다.』

혁명은 련속적인 공격전이며
위대한 형도자의 강의 의지와 공
격방식은 혁명가들의 최고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달라서고 민족사에 특기할 경이적
사변들이 다채로운 형태로 나고
있는 것은 경에 하는 장군님의 정력
와 함께 하는 강행군현지지도의
경에 하는 장군님의 헌지이다.

오늘도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불변불화
의 강행군으로 2. 8비날론련합기
업소와 통성기계련합기업부문, 홍남
비료련합기업부문을 비롯한 대고조
경전장을 찾고 또 찾으신다.

경에 하는 장군님의 강행군보복은

아버지수령님의 한평생이 깃든 혁
명의 불을 높여 추켜드시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영원한 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송고인에 국축
정의 보복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의 풍물과 함께 하는
백두산에 혁명가들의 최고의
봉우리를 높여나가고 있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의 강행군
로정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풀어
놓았던 장군님의 혁명정신이다.

두 줄기 궤도우에 새겨가는 위훈의 자욱

눈을 허리를 쳤다. 그러한 무산군의 한 산판에서 청진철길대 일군들과 철길원들로 조직된 돌격대가 자체로 생산한 침목들을 역까지 끌어내리기 위한 전투를 벌리고 있었다.

«대장동지, 이젠 마지막입니다.»

한 돌격대원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하는 말이었다.

«그렇소, 이 침목들까지 끌어내면 침목생산전투를 결승하게 되오. 자, 그럼 누가 결승 템포를 먼저 끌어가는가를 봅시다. 앞으로!»

철길대대장동무의 기쁨에 젖은 구령소리가 떨어지기 비쁘게 대오는 침목을 끌고 눈덮인 산판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였다.

«자기 조수, 자기 일련에서 서 말거친 혁명업과 흘러 히 수행하며 당의 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찰해나가는 사람이 오늘의 대고조시 대가 요구하는 수령결사옹위부사입니다.»

청진철길대의 일군들과 철길원들이 자체로 침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판에 오른 것은 지난해 말이었다. 그때 철길대에서는 초급당 위원회의 지도밑에 새해에는 자체의 힘으로 철길 강도를 결성적으로 높이기 위한 문제를 가지고 협의회가 진지하게 진행 되었다. 침목생산과로 반보수, 고착물생산, 기공구생산...

그 모든 것을 자체의 힘으로 하자면 단치 않았다.

지난 시기보다 침목과 고착

청진 철길대 일군들과 철길원들

풀생산량을 훨씬 늘여야 하였다. 일부 사람들이 침목은 우에서도 보장해 주는 것 만큼 그 생산량을 높일 필요가 있겠는가고 하였다. 그때 철길대대장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인민경제의 선행판인 철도 운수는 강성대 국건설에서 기관차와 같습니다. 그므로 우리가 지켜선 두줄기 궤도, 철길의 강도를 결정적으로 높이자면 침목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그는 철길대가 총동원되어 침목생산전투를 벌릴때 대하여 호소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 그의 결심을 적극 지지하였다.

그리하여 대장동무를 비롯한 철길대의 일군들과 철길원들로 침목생산을 위한 수백명의 돌격대가 조직되어 채발자로 떠나게 되었다.

허리치는 눈덮인 산판에서의 침목생산전투는 말처럼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젊은 기간에 침목생산전투를 무조건 끝낼 결심밑에 통나무베기 전투를 벌리었다.

그렇게 지난해말까지 계획된 통나무베기를 끝낸 그들은 새 것을 그것을 마지막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전투에 달려섰다. 눈길속에서 수십리에 달하는 역까지 하루에도 몇번씩 침목을 끌어내린다는 것은 험직 않았다.

그러나 돌격대원들은 하루에도 몇번씩 침목을 나르며 경쟁적으로 전투를 벌리였다.

대장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돌격대원들을 혁신으로 이끌 때 철길대의 생산소대와

이나갔다.

어느 날이었다. 침목생산전투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한 돌격대원이 그만 바출을 놓치었다. 그러자 침목은 살처럼 내리풀리다가 가슴치는 눈속에 박혔다. 그러자 그 돌격대원은 손뼉을 놓고 그 자리에 펼 쪽 주저앉았다.

이때 그에게로 다가온 대장동무가 힘들어도 꿀 어려내자고, 율례 1월 1일부로 『로동신문』에 어찌하여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승리의 길』 노래가 실려 있는 가를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다.

—어버이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다음에 강성대 국의 대문을 열자는 것은 우리 당의 의지이며 결심이다.

강성대국의 대문은 그 누구에 열어 주지 않는다. 우리의 존, 우리의 힘으로 열어야 한다.

그러자면 김철의 로동계급이 전국의 근자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호소한 것처럼 자기 일터, 자기 소초를 한치도 물려 놓지 않는 전선으로 생각하며 자기가 맡은 생산과제를 주호도 어길수 없는 전투명령으로 여기고 과감한 공격전을 벌여야 한다.

이것이었다. 이런 견인불발의 의지와 불굴의 정신력을 알고 그들은 지난해보다 근 2배에 달하는 침목을 젊은 기간에 생산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돌격대원들이 눈덮인 산판에 이렇게 침목생산전투를 벌리면서 철길대의 일군과는 차별화를

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전개적으로 벌려나갔다.

특히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밤새워되는 자그마한 공정 적소행도 놓치지 않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나갔다.

방모를에 모여온 그들에게는 원군사업을 시작할 때의 일이 되새겨졌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였다.

『인민군대를 사랑하고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10여년전 금수산기념궁전에 방문하고 돌아온 황주군군인들의 소행은 적극 일반화에 그들의 원군들은 더욱 출기하게 되어졌다.

그리하여 철길대 암의 모든 철길소대들에서는 다른 철길소대를 도와주는 미풍이 밟혀 되었을 때였다. 초급당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차기 심포생산전투를 벌리면서 차기 심포가 모자라 안타까워하였다.

그때 초급당에서는 이렇게 말하면서 일군들이 앞장에서 돌격전을 벌리자고 호소하였다. 그 호소에 일군들이 팔을 길고나섰다.

그리하여 철길대에서는 다른 철길소대를 도와주는 미풍이 활짝 풀려나게 되었으니, 허우정을 전해준다.

그리하여 철길대에서는 높이 세우는 1월 철길고착물, 기공구생산계획을 보름동안에 해체하였다.

올해 첫 철길에서부터 두 줄기 궤도우에 자랑한 위훈의 자속을 새겨가고 있는 청진철길 대의 일군들과 철길원들은 지금 이런 의지와 훌륭한 신심에 넘쳐 철길소대들에 차기 심포를 높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고 있다.

본사기자로 주봉

친아들딸들을 위하는 심정으로 황주군농맹원들

지난해 12월 황주군농맹원위원회의 일군들은 크나큰 걱정에 힘쓰고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원군사업을 잘하고 있는 그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풂여주시었던 것이다.

그날 기쁨속에 한자리에 모여온 그들에게는 원군사업을 시작할 때의 일이 되새겨졌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였다.

『인민군대를 사랑하고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던 어느날 그들은 갑작 적인 소식에 접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들의 소행을 보해하시고 온 나라가 다 알도록 하시였다.

황주군농맹원위원회 일군들과 군인들은 그들의 지성에서 고향의 친부모의 사랑을 느끼며 고마움의 편지를 자주 보내왔다. 오늘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들의 소행을 보해하시고 온 나라가 다 알도록 하시였다.

그날 이들은 원군사업을 더 잘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였다.

군농근맹위원회에서는 통이

큰 원군사업 목표를 세우고 군

본사기자

2월의 명령을 알리고

김정일회운실에서

본사기자장 철길 편

국립 철길 편

김정일 편

절대로 넘어들수 없는 일제의 날강도적인 문화재략탈범죄

위대한 수령 김 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거 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민족의 찬란한 민족문화를 말살 하려고 갖은 책들을 다 하였습니다.»

반반년의 유구한 역사가 가진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우수한 문화를 창조하여 그 이름을 세상에 떨쳤다.

유구한 세월 우리 민족의 뛰어난 창조적지혜와 재능이 깃든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들은 지난날 일본침략자들에게 의해 수많이 파괴, 훼손당하였다.

얼마전 한 외신은 일본에 있는 우리 나라 문화재가 수십만점에 달한다고 보도하였다.

오늘 국제적으로 파괴범죄를 성근하게 반성하고 청산하는것이 추세로 되고있다. 제 2 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인류에게 해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도이월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파괴범죄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실지행동으로 자기의 잘못을 쟁고있다. 이것은 죄악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현시대와 역사의 흐름에 밟을 맞추려는 의지를 보여주는것이다.

조일간에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역사적문제들이 수다하다. 여기에서 광개일제의 날강도적인 조선문화재 파괴, 훼손당하였다. 일본인들이 일본의 지방도시에 출몰하여 일본을 고려자들이 거예되었던 것이다.

일제는 조선강점초기에 벌써 고적유물탐험가 세끼노를 두목으로 한 단체를 구성하여 10년간에 걸쳐 조선총독부에 있는 우리의 민족유산에 대한 전면적이며 전문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총 15권에 달하는 『조선고적도보』를 작성하였다. 이 목록에 기초하여 『통감』 이등박문은 조선문화재로 『조사, 수집』 명령을 발표하고 조선민족유산탐험을 범적기초우에서 제도적으로 강행하였다. 이등박문은 공민왕릉에서 약 10여 차량의 보물을 파갔다. 일제가 조선강점시기 200여년의 무지막지한 파괴, 훼손당하였다. 이등박문의 뒤를 이은 초대 『조선총독』 대리우찌는 『고적 및 유물보존 교육』을 추가발포하고 『총독부』의 권력을 발동하여 현장봉쇄 등으로 계엄상태를 조성한 속에서 조선민족유산에 대한 훼손을 막았다. 일제는 이렇게 훼손당한 우리 나라의 귀중한 문화재들을 일본의 『국보』로 등록하고 박물관까지 차려놓고 빼앗기 전시하였다.

일본인들은 오사카의 오사카시립동물자연박물관에는 균 800점의 조선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다. 지방도시의 한 채 미술관에 이렇듯 많은 우리 나라의 가치있는 도자기유물들이 있을 텐데 일본각지에 널려있는 우리 나라 도자기유물은 얼마나 많겠는가.

도자기 하나만을 놓고보자. 괴자 우리 민족이 창조한 도자기문화는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에 눈독을 들인 일본에서는 일본각지의 박물관, 미

나라의 도자기박람회에 몰두하였다.

1909년 일본의 도쿄에서 고려자기 전시회가 열렸었다. 여기에는 수많은 고려자기들이 출품되었다. 이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된 전시품들의 대부분은 우리 나라 무덤도구들로서 일제침략자들이 훔쳐간 고려자기들이었다.

그 다음에 전시회에 참가되었던 일본인들이 『조선의』 어디라도 들어온 고려자기는 단 한점도 지상에서 그것을 볼수 없고 모두 고분에서 파내고있다. 지금 우리 일본인들이 일본인들이 일본인들이 고려자기만 하여도 일본 전국각지에 수만점이나 있다고 한다.

실로 우리 나라 문화유물에 대한 일제침략자들의 훼손행위는 전대미문의 날강도적인 문화재 강탈범죄였다.

민족문화재에는 역사발전과정에 형성되고 계승된 민족의 성격과 전통, 습관과 세습이 깃들어있다. 그러나 일제는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한 책동의 한 고로 조선문화재파괴와 훼손행위를 미친듯이 강행하였던 것이다.

서울에 있었던 『경성미술구락부』의 경성미술관에서는 일본본도적놈들이 자고 굽하여 죽이 더덕더덕 묻은 고려자기들이 거예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조선총독부』를 두고 『조선총독부』 학무국 고적조사과 주임을 지낸 후지다료 사무주는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

고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 파는 우

리나 『고분을

파괴하</